장수 농특산물 직매장

# 수입산 판매가 웬말?

## 영수증 품명은 '장수골꺼먹돼지앞다리'로 표기해 소비자 현혹

장수군이 경기도 용인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 건립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수군농특산직매장에서 수입축산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당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에 소재한 장수 한우와 농특산물판매시설인 장수농특산물직매장 '장수랑'에서 미국산 우삼겹과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랑'의 지난 7월 6일 축산물 표시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시된 우삼겹을 100g당 1800원에 판매했다. 또 원산지가 멕시코인 꺼멍돼지목살과 삼겹살을 각각 100g당 165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영수증 품명에는 '장수골꺼먹돼지앞다리'와 '장수골꺼먹돼지뒷다리'로 표기해 마치 장수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랑'은 장수군이 장수군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건립,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입산 축산물 판매는 사업취지는 물론 운영 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장수군과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이 2016년 4월 체결한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장수한우는 장수군 한우로 100% 진열 판매해야 하고 한우를 제외한 장수군 농산물은 해당 품목 진열물량의 70% 이상으로 진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장수군은 사용자인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에 대해 지도감독과 보완 및 시정지시를 해야 하지만 수입축산물 판매사실을 인지조차 못해 빈축을 샀다.

협약서에 장수군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지시 등을 불이행할 경우 주의와 경고 3~15일간 사용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관계자는 "판매장이 너무 넓어 현실적으로 장수군 농특산물로 진열장을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장수군과 협의해 장수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롯데수퍼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롯데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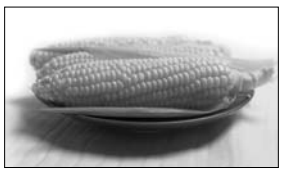
장수군 관계자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 축산물을 본 적이 없다"며 "농특산물 직매장과 롯데슈퍼가 공급하는 수입 축산물 판매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직매장에서 축산물을 구입한 장수출신 A씨는 "장수군이 혈세를 투자해 건립한 농특산물 판매시설에서 수입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장수한우의 명성에 먹칠하고 예산을 축내는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폭염에 집나간 입맛 '무주옥수수로'

### 쫀득한 식감 · 풍부한 영양 두터운 마니아층 등 인기



무주반딧불 대학찰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다. 무주군은 지역 내 옥수수 주재배단지인 무풍과 적상, 설천면 일대에서 수확이 시작되면서 반딧불사이버 장터(www.mj1614.com/문의 080-055-0027)를 통한 판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가는 1접 당(100개) 4~5만원이며 50개 포장도 2~3만원 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무주군 관계자는 "옥수수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구입문의나 주문량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며 "무주반딧불 대학찰옥수수는 고랭지에서 생산해 맛과 식감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껍질이 얇고 찰기가 있어 여름철 간식으로 정말 최고"라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대학찰옥수수 품종을 도입해 재배(196ha규모, 800여 농가에서 연간 460만 개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몇 년 전에 무주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먹어보고 무주옥수수 맛에 반했다"라며 "7월 이 맘 때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사서 우리도 먹고 주변에도 선물해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 장수, 산촌캠프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번암면 유정리 남양마을 일대에서 산촌캠프 프로그램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도농교류 산촌캠프는 2018년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남양마을 주민들이 장수군과 장수군중간지원조직(사)장수지역활력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행사이다.

이번 산촌캠핑은 '바람계곡 남양마을'을 테마로 진행됐으며 마을주민 해설사와 동네구경, 마을잔치 함께하기, 마을작가초대석, 별구경 및 별자리 찾기, 마을우물에서 소원빌기, 농촌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휴가 기간 농촌마을을 방문한 도시민들이 마을회관, 모정, 농가 마당을 이용해 캠핑을 즐겼다.

번암면 유정권역운영위원회 백병화 위원장은 "평소 마을에 아이들의 소리도 없고 조용했는데 도시민들이 마을에 놀러와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활력을 부여할 일들을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고원 치유숲 '물놀이 잔치' 열린다

진안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신나는 물놀이 잔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물놀이 잔치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환경교육과 치유숲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 식사, 간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진안고원 치유숲 야외광장에 물놀이기구(에어바운스)를 설치했다. 진안군의료원 조백환원장과 힐링스쿨 황성수박사로부터 아토피, 알러지, 비염, 가려움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식사비용으로 아동 2,500원, 성인은 4,500원이다. 개인은 당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고 단체는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문의 진안고원 치유숲 063-433-1666)

진안고원 치유숲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백환 원장은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방학에 진안고원 치유숲에 와서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 치유숲에서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나누리캠프(6~9월), 자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10~12월), 생활습관개선교육 및 체험(옥녀폭포 산책, 에코팩만들기, 홍삼족욕, 천연염색, 흙놀이(수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민주평통 진안협 자문위원 위촉

민주평통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회장 최경호)는 지난 19일 이항로 군수,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간담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날 이항로 군수는 의장인 대통령을 대행해 지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한기 전북도의원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 지역주민이 선출한 도의원과 군의원을 임기 2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남은 임기인 내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간담회와 동영상 시청, 기념촬영 등도 이어졌다.

최경호 협의회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신 이한기 의원님과 신갑수 군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의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에 위촉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휴가철 맞이 불법 ·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시설원예 지원 신청하세요"

## 무주군, 31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서 접수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시설원예현대화(자부담 20%)를 비롯한 스마트 팜 시설보급(ICT 융·복합 확산, 자부담 20%))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자부담10~20%) 부문으로, 무인방제기와 자동개폐기, 양액·관수기, CO2 발생기 등을 지원(사업비 상한액 없음)하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각종 센서장비와 영상, 제어장비를 비롯해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스마트 팜 시설보급지원 사업비는 노지의 경우 ha당 2,000만원, 복합환경관리시설은 0.33ha당 2,000만원, 단순환경관리 시설은 0.33ha당 700만원으로,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와 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다겹 보온커튼과 자동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은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와 화훼, 과수, 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김영수 원예특작 담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시설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주에서는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관련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모집

장수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의사를 밝힌 만 19세 이상 장수군민 중에 읍면별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해여 선발하며, 선발된 군민배심원은 8월에 위촉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실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군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